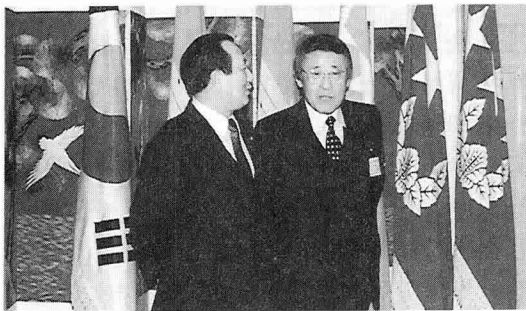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國防部長官 主宰 리셉션 성황리에 열려...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국방부장관 주재 '89 리셉션이 12월 12일 육군회관 무궁화홀에서 李相薰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인사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李相薰 국방장관과 환담하는 柳續佑 회장



李相薰 국방장관 만찬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奔忙한 시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기간중 헌신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70년대초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17년의 짧은 기간에 재래식 병기의 자급자족과 한국형 전차, 제공호 등을 비롯한 일부 고도정밀병기의 양산체제 구축으로 자주국방력 배양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군의 기본병기 충족에 따르는 수요의 한계와 제3국으로의 수출부진,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 심화, 방산투자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방위산업 성장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시,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목표와 발전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임에도,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되는 등 그 전망이 점점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방산인은 자주국방력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합심 전력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까.

- 기초연구 강화와 체계개발 역량을 총집결, 독자적인 개발영역 확대
- 외국의 완성장비 도입에서 국내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 등으로 전환, 새로운 국내수요 창출

• 방산 및 군용장비의 유지부품 국산화 촉진으로 가동율 제고 등 자구책 강구

• 민간 및 정부차원의 대미접촉과 제3국과의 군사외교강화 등 해외협력 활동 강화로 방산수출 확대 및 선진기술도입의 다변화

또한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또다시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파업 등 조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89년 12월 7일에 방산업체 노조위원장을 초청하여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수렴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방산업체의 안정적 조업과 산업평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노조위원장들은—

• 회사 경영자와 근로자 대표간의 대화의 통로가 없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소외감을 주고 있다.

• 병역특례자임을 악용하여 인사, 급여 등 제반 근무여건에서 불평등 대우를 하고 있다.

• 일부 방산업체는 안정적인 조달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시설 투자가 전혀 되지않아 낙후된 장비로 인한 재해사건 발생이 빈번하다.

• 향학열에 불타는 나이 어린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육의 문을 넓혀주기 바란다.

• 방산업체 노동쟁의 조정 및 정부와 기업간의 노동행정 문제를 기업은 노동자측에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등 매우 소박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자리에 오신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근로자 대표와의 대화의 장을 넓혀 회사의 어려운 실정과 기업경영 수치 등 알릴 수 있는 문제는 가족같이 무릎을 맞대고 설득하는 등 인간적인 예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함께 회사 사정이 허락하지는 한 배움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방통대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할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국내 및 해외연수 기회 폭을 넓혀주는 등 수용이 가능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받아들여 근로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산제품은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어떤 다른 제품으로도 대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중 정부가 방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각종 세제 감면, 근로자에 대한 병역특례,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국·공영사업보다 우위의 육성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88년도에 이어 금년에 또 일부 방산업체에서 외부 불순세력과 연계한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 방산물자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부대의 증·창설, 육성훈련, 노후장비 교체 등 군 전력증강 계획 추진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 방산업체의 불법적인 노사분규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여 왔고, 본인 역시 방산업체에서만은 노사분규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衷情에서 금년 5월 15일 방산업체 예비군 지휘관 및 비상계획관에 대하여 12월 7일에는 방산업체 노조위원장을 초치하여, 방산물자의 생

산중단시 군에 미치는 심각한 사례를 설명하고 노사화합에 적극 협력하여 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본인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분·급여 및 제반작업 여건 등을 자체 개선함으로써,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산업의自救 노력이 초기에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방산관계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거나 현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개선보완을 추진중입니다.

개선완료 후 시행중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물자 및 시제 위촉물자도 방산원가 계산 기준 및 계약상 특례 적용

• 첨단 방산물자 연구개발 및 부품국산화시 방산육성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

• 방산조달원가 제정의 합리화 및 방산특례 계약제도의 확대

• 방산육성기금의 추가확보('90년 : 50억원)

※이는 해마다 추가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선 보완을 추진중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충당금, 상여금 지급을 인상 등을 위한 원가계산 기준규정 개정

• 연구개발 및 시제기간의 단축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경비절약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 개선 보완

• 방산 수리 부속품의 원활한 수급과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방산 수리 부속품을 조달계약상 방산물자로 인정

• 방산분야에 대한 세제상 감면제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

• 국내업체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해외도입시보다 상대적으로 고가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군수급의 원활화 측면에서 해외 직구매, 업체 생산체계의 이원화도 검토 가능

끝으로 기간중 방위산업 일선에서 군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사다난했던 '80년대를 永劫속에 물어버리고 도약과 응비의 희망찬 '90년대를 향해 새 출발을 함께 기약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배를 제의합니다.

柳 纘 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李相蕪 국방장관님, 그리고 내빈과 방산업계대표 여러분

장관님께서 국사다망하신티에도 불구하고 방산업계의 노사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산업체의 노동조합대표들을 위해 대화와 격려의 자리를 가지신데 이어, 오늘 방산업체 및 수출업체 대표들을 위해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7년의 6·29선언 이후 우리나라 생

산계는 계속되는 노사분규에 휘말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위기의 국면에 처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헌법과 관련법규에 의해 쟁의행위가 금지된 우리 방산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경험해야 했으며, 일부사업장의 경우 불법쟁의행위가 점차 극열화되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노사관계 본래의 범주를 벗어나 민주화 추세를 틈탄 체제도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업계대표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準戰時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방위산업이 노사분규로 인해 조업의 차질을 빚는 오늘의 현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나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노사분규를 방지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해당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기업 스스로

근무조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노사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신뢰를 돈독히 하는 등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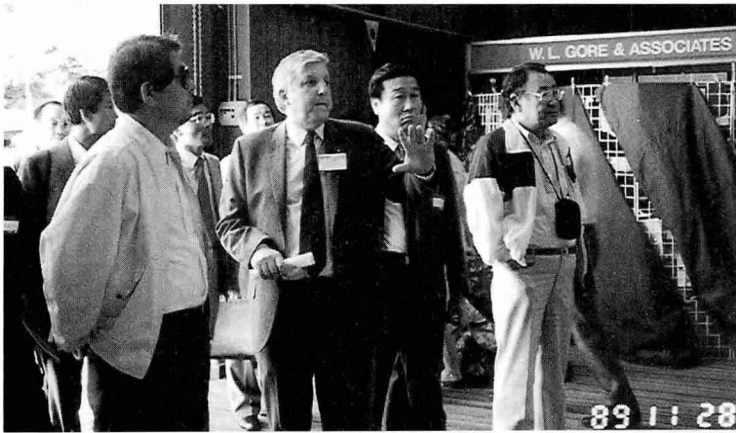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 당국도 기업능력의 한계를 떠나 체제도 전적 성격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집행 등 실정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방위산업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업을 중단할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베풀어주신 뜻깊은 자리를 맞아 우리 회원사대표들은 국가안보의 역군으로서 높은 긍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오며,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바입니다.

이상훈 국방부장관님과 내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축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濠洲 방산전시회 참관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등 4개국 방문—



호주 캔버라에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개최된 국제 방산전시회(AI-DEX '89)를 참관한 국내 방산업체 대표단 일행이 DMC의 Meibusch 장군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함께 안내를 받고 있다

화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방산제조위원회(DMC)를 방문하여 토의시간을 가진후 한자리에 모인 우리 대표단 일행



호주 방산제조위원회를 방문하여 한국과 호주의 방산협력 증진에 관해 토의시간을 가졌다.